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364호 (2023년 8월 8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정부 “잼버리 내일 오전 10시부터 철수…수도권으로”

3만6천여명 출발·버스 1천대 이상 동원…“비용은 정부 전적으로 부담”

태풍 카누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영지로부터 비상 대피한다. 7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6일) 대통령께서 정부 대책마련을 지시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피계획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됐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대피는 내일(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6천여명이며, 버스 총 1천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진행 상황을 봄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송 과정 안전과 질서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뤄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전국 자체 협조를 통해 태풍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숙소를 마련하고 자체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상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원들이 어떤 숙소에 묵을지도 논의가 이뤄진다. 여러 영외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한다.

김 본부장은 “남은 4박 5일동안 참가자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울 소재 일반 가정집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원들 흡스테이가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 대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K팝 콘서트 공연계획도 자체 예산 비상대피계획 속에서 여려 사안을

접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을 고려해, 그 대상에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애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같은 철수 결정이 한국 정부 제안인지, 세계연맹 요청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저희(정부)는 저희대로, 연맹은 연맹대로 회의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잼버리가 중단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체와 영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 노승만 기자

‘분당 흉기난동범’ 22세 최원종 신상공개…머그샷 촬영 거부

신상공개심의위, 경찰 수사과정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진 등 공개



<운전면허증 사진> <경거 당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여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벌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 송원기 기자

Photo News



태풍 카누 북상 여파로 제주는 연일 풍랑특보

제6호 태풍 카누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풍랑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에 평소보다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태풍 ‘카누’ 북상에

“취약지역 면밀점검”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제6호 태풍 ‘카누’ 북상과 관련해 취약지역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긴급 지시했다.

카누는 오는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0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라”며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침수, 산사태 등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해 참가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강수 상황을 감안해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 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 피해방지를 위해 흉수 특보 및 방류 상황을 신속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 최경민 기자

촘촘한 맞춤복지

- 영유아 주·야간 시간제 보육실 운영**
- 미취업 청년 지원 ALL-PASS**
- 60세 이상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희망도시



성남시



성남시
승격 50주년

여가부 장관 “잼버리 성범죄 가해자 지목 남성, 피해자와 분리”

“경찰 조사 절차로 여전히 영내 머물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쟬버리에서 성범죄 피해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됐다고 쟬버리 조직위원회 측이 7일 밝혔다.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맨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분리 조치 된 거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과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랑 통화했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됐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은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오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 했다면서 대원 80여명이 조기 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란 취지로 발언을 해 여론의 물体质를 맞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경미하다’라고 한 것은 ‘성범죄가 경미하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어제 경찰이 건조물 침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해당 남성은 아직 영내에서 머무르고 있다.

최종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퇴소를 하도록 했는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임의로 퇴소할 수가 없고 영내에



발표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누 대비책은 이날 오후에 발표한다.

최 사무총장은 “9일부터 태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연맹은 오늘은 정상적으로 영내외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추가 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향후에 (태풍 등으로) 대피할 숙소 인근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안전 관계기관과 태풍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조기 퇴영한 미국과 영국 대원들이 (오는 11일로 연기된) 콘서트에 합류할지 여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국, 미국에 이어 조기 퇴영을 결정한 싱가포르 대원 65명은 현재 영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예산 지적 문제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최 사무총장은 “잼버리 관련 예산은 1천130억원이고, 그중 조직위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 등 총 84억원”이라며 “나머지 예산은 쟬버리 시설비와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말한 예산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라며 “예산과 관련된 보도는 꼭 확인해주고, 잘못된 보도는 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유영 기자



아시아나, 캐빈승무원 보안 훈련 전면 강화

전국 공항에 ‘테러 예고’ 잇따라 공항공사·항공사 경계 강화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 예고가 온라인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공항에서도 테러를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찰 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해 더 자주 점검하고 있고, 여객 터미널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외곽 조소와 상주직원 출입 통

‘살인예고’ 187건 중 59명 검거…10대가 절반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사흘간 검문검색 14명 적발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 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



‘살인 예고’에 전국이 불안

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혐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다. 마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 김현준 기자

5곳의 공항에서 테러 예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폭탄이 터지면 대피하는 사람들을 트럭으로 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어 전날 오후 9시 7분께에는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려 간다’는 내용의 글이, 오후 11시 16분께에는 대구공항에서 테러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다. 또 전날 오후 8시 50분과 이날 오후 0시 18분에는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 공항에서는 공항경찰대 등이 면밀히 수색했으나 실제 위험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 작성자들이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우회 접속해 글을 쓴 것으로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양대 공항공사는 만연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해 테러 의심 상황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로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공항 내 노숙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면밀히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쟬버리’ 참가 대원들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날 오후부터 관할 14개 공항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역시 순찰 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했고, 한 번에 순찰에 나서는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또 공항경찰대, 폭발물처리반(EOD) 등과 공조해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각 항공사도 기내 난동 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공항 지점 직원이나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보안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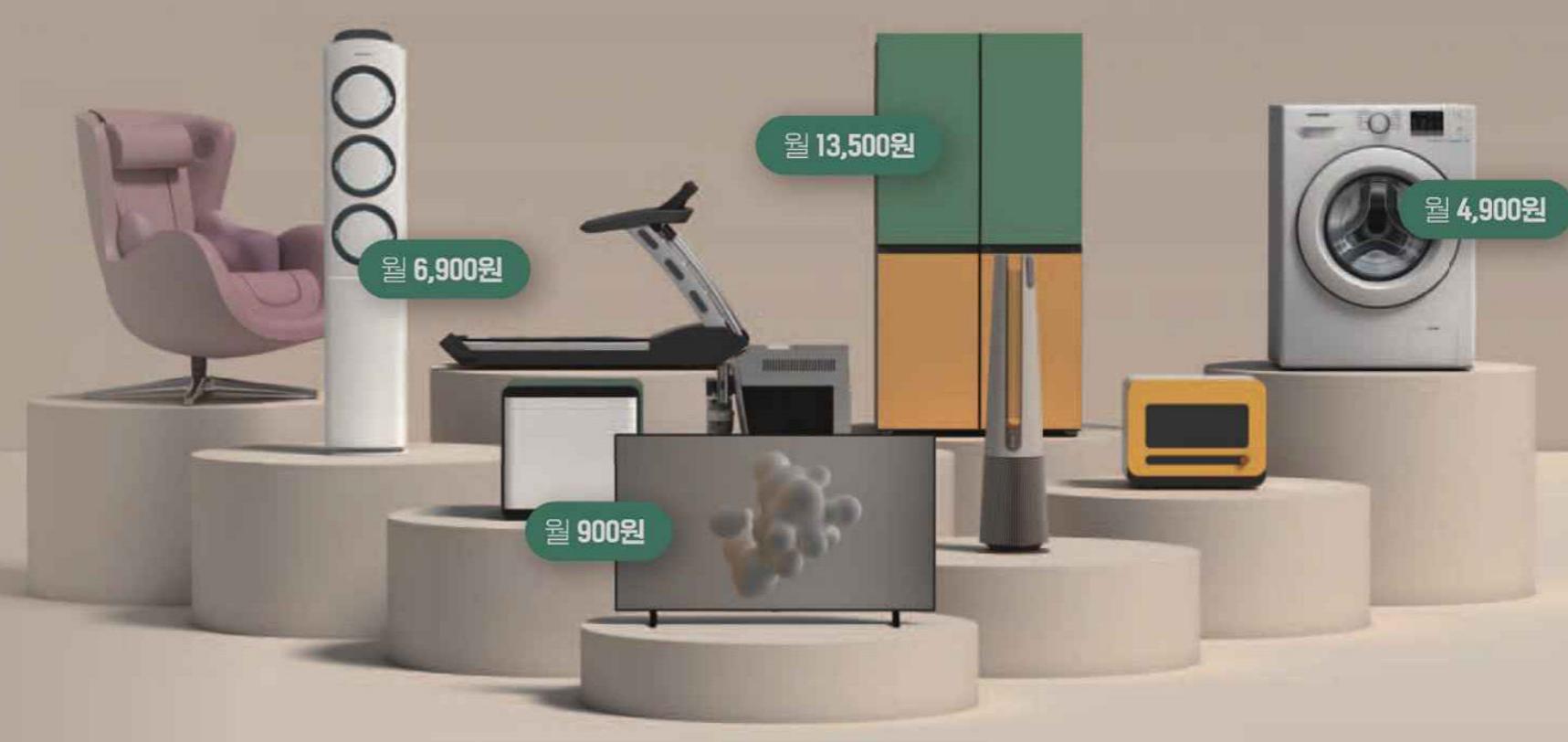
/ 이준한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오늘·내일 오후 전력수요 피크 전망...“11GW 이상 예비력 확보”

전력거래소, 오늘 최대전력 발생시간 오후 5~6시 예상...예비력은 ‘정상’ 상태

정부는 7일과 8일 오후 전력 수요가 92.9GW(기가와트)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카누’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 주 전력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력 수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공급 능력은 현재까지 104GW가 확보됐다.

지난달 24일 운전 중 자동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0.95GW)도 전날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이번 주 피크 주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한빛원전 2호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8일 전력 수요 피크 시 92.9GW의 전력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경보 기준은 예비력 4.5GW 시 ‘관



이정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전력수요 피크 대비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종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에서 시작해 3.5GW ‘주의’, 2.5GW ‘경계’, 1.5GW ‘심각’으로 격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최대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5~6시, 최대전력은 92.7GW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11.43GW로, ‘정상’ 상태라고 전력거래소는 전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전력수급은 안정

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력 당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주 피크에 대비해 사설상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정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 피크가 예상됨에 따라 오전 수도권 지역의 핵심 발전 설비인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피크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설비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발전소 운영을 통제하는 전기실, 가스터빈이 가동 중인 지하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전,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하고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 변동성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며 수급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력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전력 설비를 반복적으로 점검해 불시고

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폭염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등 작업장 안전관리도 세심히 쟁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이번 주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일부 매장의 개문 냉방을 자체해달라”고 덧붙였다.

/ 김종훈 기자



“택배 하루 쉽니다”(CG)

오는 14일은 ‘택배 없는 날’ 편의점 반값 택배는 그대로 운영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택배 없는 날’이 올해도 ‘8월 14일’로 지정돼 운영된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은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일요일인 13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

12일에 접수한 택배는 16일 이후부터 배송되고, 이를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된다.

만약 GS25와 CU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는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이 이뤄진다.

CU는 오는 20일까지 토스나 번개장터에서 ‘알뜰택배(반값택배)’를 접수하면 500원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8월 한 달간은 매주 월요일에 포켓 CU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뜰택배를 예약하면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CU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없는 날에는

편의점으로 택배 수요가 몰리면서 알뜰택배 이용 건수가 직전 주보다 95%가량 증가했다.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속배송, 마켓컬리의 샷별배송도 평소대로 이뤄진다.

한편, 11번가는 택배 없는 날을 고려해 매달 11일에 진행해오던 할인 행사 ‘월간 십일절’을 7~11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월간 십일절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주말과 광복절 등에 배송 물량이 누적돼 택배기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주요 택배사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 정윤호 기자

휴가 직후 개각 없다...尹대통령, 당분간 잼버리 지원 총력

개각 밀리는 분위기, 행복청장만 해임 전망...尹, 오늘 한총리·이상민 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남 거제의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을 방문,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야영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새만금 간척지를 행사장으로 지정하고, 잼버리와 관련이 크지 않은 지역 인프라 투자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3박 4일 동안 머무르다 상경했으며 휴가 마지막 날인 8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휴가 직후로 접쳐졌던 2차 개각 시점은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잼버리만 쟁쳤다”며 “정국 구상의 결과로 개각이 급물

내일부터 다시 공식 일정 소화...광복절 특사는 ‘정치인 제외·경제인 위주’ 관측

이다.

오는 8일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는 윤 대통령은 주초부터 사실상 정상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직접 쟁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잼버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냉방 버스와 냉동 탑차 투입, 식수 공급과 급식 질 개선, 의료 물자 추가 지원과 위생 관리 강화,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가동 등 잼버리 현

체적인 지사는 행사 종료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기업, 지자체, 민간 단체, 종교단체까지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서 힘을 모았다”며 “잼버리를 위한 대통령의 복안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기간 중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누’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으며, 잼버리 종료 후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불가피할 것

살을 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구두로 건의한 이상래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 문제만 머지 않은 시기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 법무부로부터 광복절 특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인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법을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물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오는 18일(현지시 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준비 작업도 휴가 뒤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 송원기 기자

정부 “오염수 방류시기 당연히”日に 결정…정부 논의사항 아냐

일일 브리핑서 ‘이달 하순 방류 관측’ 日 언론 보도에 언급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7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에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1차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입장 설명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는 이날 오전과 오후 화상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날 협의 수석대표는 양국 외교당국 심의관급 인사가 맡는다.

박 차장은 이날 협의에서 방류 시기도 논의되는지 묻는 말에 “회의 자체가 실무 회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실무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

이 있어서 그것을 매듭짓는 후속 회의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 환경과학외교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회담에서 일본 측에 요구한 내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네 가지 기술적 제언 등이 이날 실무 협의의 주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절경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적 방류 중단 및 한국과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이민성 기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2023.8.7.(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8호

발언하는 김영식 과학기술특위 부위원장

與과학기술특위 “연구비 카르텔·R&D 투자 비효율 해결할 것”

현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인사처 “공무담임권 보장 등 현재 취지 반영”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법 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

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정지원칙에 위배돼 현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현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현법상 공무 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현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는 “연구비 카르텔”과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 등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특위 위원장(포항공대 교수)

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개

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

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반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 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제 없이 (용어가)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원내위원인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 민간위원인 김동성·김오광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김형숙·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정현석·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연정·굿센 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돋기 위한 지원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곽도훈 기자

인사혁신처

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서종익 기자

野정성호 “이재명, 정기국회 후 총선 승리 위해 거취 선택 전망”

“李 사퇴, 최선책 아냐”…‘李 총선 불출마론’에 “모든 건 열려있지만 지금 단계 거론 부적절”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정성호 의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했으나 모든 건 열려 있다”며 “다만 불출마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약속, 국회의원의 책임 측면에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8월 구속영장 청구설’과 관련해서는 “자꾸 여러 설만 나오는데 이 대표가 힘이 있다면 검찰은 소환하면 되지 않느냐”며 “(영장 청구 시점이) 회기 중이라도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으니 우리 당도 그것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원로급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차기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일괄 해제 절차를 낸다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홍종민 기자

“병역 이행 중이면 할인해드려요”

병무청 ‘나라사랑 가게’ 모집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나라사랑 가게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동원훈련 중인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할인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대상업체는 음식점, 카페, 헬스장, 숙박

업소, 이·미용실, 개인병원 등이며, 할인율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나라사랑 가게 참여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선정된 업체를 병무청 홈



페이지에 등록하고, 나라사랑 가게 인증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나라사랑 가게 참여를 통해 병역이행자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성진 기자

부산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서훈·박지원, 국정원 채용비리 혐의 검찰 송치



박지원(사진 왼쪽)·서훈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 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 전 실장을, 지난달 1일 박 전 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혜 채용 당사자 3명도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하던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달하는 데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인 박 전 원장 역시 자신의 보좌진 등으로 일한 강모 씨와

박모 씨가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경찰은 지난 6월 10일 서 전 실장을, 지난달 1일 박 전 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혜 채용 당사자 3명도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가정보원과 이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낸 두 사람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함께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시킨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전략연 부원장까지 지난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해 전략연에 임대 수입만큼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넘겨졌다.

/ 조용찬 기자

법무부, 9일 '광복절 특사' 심사위

국정농단 관련자들 거론

재계 최지성·장충기, 정치권 안종범·김종·홍완선 등 예상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장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다. 다만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용본부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연맹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팔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

/ 송진영 기자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

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숙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번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해 펀드 출자 특

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혀왔다.

검찰은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신운용

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

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

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사 이외에 또 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에 특혜를 받았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급 인사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을 포함해 앞서 구속된 2명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김강우 기자

해경 수영해 조난 보트 40분 만에 구조…승선원 8명 무사



집회 시작한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동투쟁은 당시 오후 8시부터 서울 종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노숙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강제해산했다.

변호단은 "집회 참여 인원이 30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참여자들은 신고된 장소 텐트에서 잠을 자며 외부에 플래카드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며 "당시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또 야간집회를 전면 해산하는 지침과 해산 명령 등이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이다.

이들은 국가와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기로 했다. / 한창훈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인천
꿈을 향해
달려가는

G L O B A L

인천을 위해,
미래를 위해
300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all ways | CHEO |



I N C H E O N

세계 10대
도시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도
약

“유럽기업들, 우크라전 이후 러시아서 140조원 이상 손실”

“사업 매각·축소 등으로 손해 봐…빨리 철수할수록 이익”

지난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유럽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으로 최소 1천억 유로(약 143조원)의 직접 손실을 봤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00개 유럽 기업의 연간 보고서와 재무제표 분석 결과 176개 기업이 이러한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손실은 러시아 내 사업체 매각, 폐업 또는 사업 축소에 따른 손상차손과 외환 관련 비용 및 기타 일회성 경비 등에 따른 것이었다. 총 손실액에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전쟁의 간접적인 거시 경제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철수로 가장 큰 비용을 떠안은 기업들은 석유·가스 관련 그룹들이었다.

영국 BP와 셀, 프랑스 토탈에너지 등 3개사가 치른 비용 합산액만도 406억 유로에 달했다.



BP는 전쟁 개시 후 사흘 만에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티’ 지분 19.75%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55억 달러(33조원)의 비용을 보고했다.

토탈에너지에는 뒤늦게 지난해 말 러시아 철수를 발표했지만 역시 148억 달러의 비용을 치렀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업들은 비용에 따른 손실보다 석유·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규모가 훨씬 커 이들 3개 기업은 결과적으

로 950억유로의 이익을 냈다.

이밖에 자동차 업체들은 136억 유로, 은행·보험사·투자사 등의 금융 기업들은 175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했다.

유럽 기업들의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4월 핀란드의 가스 수입업체 포르툼과 포르툼의 독일 자회사 유니퍼의 러시아 내 자산 국유화에 들어가고, 뒤이어 지난달 프랑스 유제품 업체 다

논과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1천871개 유럽 기업 중 50% 이상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다.

러시아 사업을 계속하는 기업에는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 오스트리아 은행 라이파이젠,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 영국의 생활용품 회사 유니레버 등도 포함된다.

국제 위기 전략 컨설팅 회사 ‘컨트롤리스크’의 파트너 나비 암둘라예프는 그러나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많은 돈을 잃었지만 남은 기업들은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전쟁 초기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최선의 전략은 ‘그만 두고 떠나는 것’이어야 판명됐다”면서 “더 빨리 떠날수록 더 적은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 배성운 기자



저커버그, 머스크와 격투 26일로 제안

‘현피’ 성사될지 주목…머스크 “엑스 통해 생중계할 것”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격투 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저커버그가 결투 날짜로 오는 26일을 제안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스레드 계정에 글을 올려 “처음 머스크의 도전을 받았을 때 (결투 날짜로) 8월 26일을 제안했지만 확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오늘 준비됐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는 또 “나는 이 스포츠(격투)

기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든 훈련하는 사람들과 계속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지난 6월부터 라스베이거스 종합격투기장에서 이른바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벌이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저커버그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실제로 대결이 성사될지 더욱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저크 대 머스크의 싸움

이 엑스에서 생중계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모든 수익은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일전을 준비하면서 종일 역기를 들고 있다”면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일터에 (역기를) 가져왔다”고 썼다. 그는 무엇을 위한 결투인지 묻는 한 이용자에게 “이건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다. 사나이는 전쟁을 사랑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머스크는 이날 언제 저커버그와 격투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메타의 ‘트위터 대항마’ 격 앱인 스레드 출시를 앞두고 “무서워 죽겠네”라고 비꼬는 글을 적은 머스크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는 누군가의 댓글에 “나는 철창싸움(cage fight)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 “위치 보내라”며 한판 불을 장소를 정하고 했고, 머스크는 “진짜라면 해야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했다. / 황순길 기자

니제르와 대화냐 전쟁이냐…‘쿠데타 포기’ 경고시한 끝났다

주변 15국 “6일까지 한정질서 회복 안하면 군사개입” 경고

“국내 최초 ‘뇌사자 기증 신장’ 로봇이식 수술 성공”

은평성모병원 “로봇으로 뇌사자 신장 이식받은 50대 회복해 퇴원”

국내 최초로 로봇을 이용해 뇌사자 기증한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달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투병 중이던 50대 여성 환자가 로봇 수술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고 12일 만에 회복해 퇴원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이식팀은 수술용 로봇을 이용해 A씨의 하복부를 6cm가량으로 최소 절개하고 기증 신장을 넣은 다음, 로봇 팔이 들어갈 수 있는 1cm 크기의 작은 구멍 4개를 통해 혈관을 문합하는데 성공했다.

병원은 “일반적 개복수술을 통한 신장이식의 경우 절개창이 약 20cm에 이르고,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심해 비교적 회복이 더딘 한편 흉터 또한 크게 남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기이식병원 의료진과 환자

는다”며 로봇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뇌사자 공여 신장이식 로봇 수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내 로봇 신장이식 수술은 뇌사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생체 공여’ 사례에서만 시행됐다. 장기이식에서는 당사자 간 이식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

한데, 뇌사자 공여 이식의 경우 사전 검사 등 준비가 어렵고 빨리 대상을 선정해 수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가톨릭대학교 혈관이식외과 황정기 교수는 “신장이식을 받는 분 중에서는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으로 인해 로봇 혈관 문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뇌사자 공여는 이식 후 콩팥기능 지연이 생길 가능성도 커 로봇수술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공여자와 환자의 혈관 건강 상태 등이 좋았고, 병원에서 최근 혈액 검사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이 수술 요건에 부합해 로봇수술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국내 신장이식 중 40% 정도가 뇌사자 공여 장기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수술이 뇌사자 공여 이식 최소 침습수술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9월 한 달간 제주도민에 택배 배송비 1건당 3천원 지원

추가 배송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1인 최대 6만원까지



택배 분류 작업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이 큰 제주도민들에게 9월 한 달간 택배 1건당 3천원씩, 1인 최대 6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윤임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비 32억5천만원 등

사업을 다음 달 한 달간(9월 1~30일) 벌인다.

지원금은 제주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달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나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

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과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철민 기자

“식당 음식서 이물질 나오면 사진부터 찍고 1399로 신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천369건에서 지난해 2천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현주 기자



손팻말 든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법률대행비 70%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 도시보증공사(HUG)가 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GT아워 2층에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원 8명이 상주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

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30%를 부담한 뒤 법률 전문가에게 배당·낙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법률 전문가를 연络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과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강희경 기자

고물가에 밀키트 특수…이마트24 “올 상반기 585% 급증”



식 대신 집에서 밀키트로 간편하게 즐기려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만 19~59세 소비자 89.5%는 밀키트 구매 경험에 있었고, 85.5%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마트24는 8월 한 달간 인기 밀키트 10종에 대해 모바일 앱 ‘예약픽업’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2종 이상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한다. 예약픽업은 모바일 앱으로 예약 구매한 뒤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마트24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밀키트 카탈로그를 비치해 현장에서 바로 예약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24에서 운영하는 밀키트 상품은 총 40종으로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다.

/ 박정웅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오세훈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환영...꼼꼼히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인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를 환영하며 교통·위생·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를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한국 천주교계가 그동안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태 대주교께서 최근 저와 만나 성공적 개최와 협조를 당부하신 후 출국하셨는데 드디어 리스본 유치가 결정돼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표현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는 적계는 50만명에서 많게는 400만명이 모이는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일뿐만 아니라 사



6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테주 공원에서 열린 올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발표되자 한국의 순례자들과 주교들이 무대 위에서 태극기를 펼쳐 들며 환호하고 있다.

회 문재를 토론하는 진지한 공론의 장으

해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서울시는

로 사회적 의미도 크다”며 “서울대교구는 2027 서울대회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더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위로와 화

특히 “한반도 평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

울이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에 이어 13년 만에 방한을 예정하게 돼 이 또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기뻐했다.

오 시장은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를 대비해 숙소, 먹거리는 물론이고 교통, 위생, 안전 대책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테주 공원에서 올해 올해 세계청년대회 폐막일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가 “아시아 한국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닷새 또는 연새 동안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적계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명의 가톨릭 청년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 송원기 기자



영국 대원들

영국 캠버리 대표단 960명 인천 도착

인천 유정복 시장, 회의서 캠버리 지원 방안 마련

관광·체험 프로그램 다양 지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중 일부가 인천 영종도에 여장을 풀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영국 대표단 가운데 960명이 전날 오후 늦게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호텔 3곳에 나눠서 투숙했다.

시 관계자는 “어제 저녁 인천에 도착한 영국 대원 상당수가 몹시 지친 상태여서 우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인천의 명소를 둘러보는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만금 캠버리에 참가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 문화·힐링·평화·역사·감동을 주제로 한 5개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당일 코스부터 1박2일, 3박4일 코스까지 다양

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와 개항장, 월미도, 아라뱃길, 강화도를 비롯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다른 국가 대표단과도 인천 방문 일정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

오는 12일부터 멕시코·벨기에·아이슬란드·아일랜드·체코·일본 캠버리 참가자 1천명이 순차적으로 인천을 방문해 지역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시는 이들의 숙박 편의를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 호텔들을 연계해주고 방학 중인 인천대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방문 기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인천관광공사의 시티투어버스도 활용할 계획이다.

/ 윤유진 기자

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

주요 정책 4개 분야 시정 수립 및 현안 과제 자문… 2년 임기 활동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등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위원님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및 문화예술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라대 광고미디어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문화복지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

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를 위촉했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감독),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화부 관광 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오페라 가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 강동준 기자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기), 진정화 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를 선임했다.

/ 강동준 기자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플랜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서울시, 한강공원 수확 농작물 70kg 푸드뱅크 기부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채소값이 급등하자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자란 가지, 오이 등 무농약 채소 70kg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잡실·이촌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재배한 수확물 중 온전하고 깔끔한 상태의 채소를 선별해

한국사회복지협회 광진푸드뱅크에 지난 달 25일 기부했다. 기부한 채소는 가지 16kg, 오이 5kg, 고추 45kg, 깻잎 3kg, 방울토마토 1kg 등 70kg이다. 기부된 채소는 필요한 시민이 가져갈 수 있게 광진푸드뱅크 마켓에 비치했다.

시는 2020년부터 약 710kg의 먹거리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고 앞으로도 수확물을 선별해 나눔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채소값이 금값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재배한 수확물을 나눠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양산시, 체납자 숨긴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



체납과의 전쟁 선포하는 나동연 양산시장

경남 양산시는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제보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때 양산시는 징수액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양산시는 올해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원을 넘기자 최근 상습·고액 체

납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양산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했다.

양산시가 파악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이른다. 징수과 소속 추적징수 태스크포스는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추심·공매, 가택 수색, 고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사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한다.

/ 권영민 기자



쓰러진 대구 중앙분리대

대구시, 폭염에 '폭삭' 중앙분리대 교체수요 조사 앞당겼다

대구에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각 구·군은 중앙분리대 일제 점검을 실시하거나 노후화된 시설 교체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매년 연말 구·군에 실시하던 중앙분리대 교체 수요 조사를 앞당기고 내년 교체 예산을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북구 침산네거리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한쪽으로 무너졌다. 무너진 구간 길이는 200m로, 북구는 1시간여 만에 철거해 추가 사고는 없었다.

구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는 열에 약한 재질인데 하단이 균열이 난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는 앞에도 중앙분리대가 폭염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중구 대구동부교회 앞 중앙분리대도 100여m가량 쓰러졌다.

변화가인 동성로와 범어네거리로 이어

/ 오창원 기자

제주도, 베트남 다낭과 교류·협력 '본격화'

오영훈 지사, 광응아이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만나 교류 물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낭과 광응아이 등 베트남 지방 정부와 교류 확대에 나서며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와 다낭시는 다낭 시청에서 실무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낭은 베트남 대표 휴양지이자 중부 거점 도시로, 베트남 5대 무역항과 높은 수준의 IT·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은 관광과 투자·무역, 농업·수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지역은 향후 인적 교류는 물론 공통 관심 분야에 기초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등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 다낭에서 열리는 '2023년 베트남-한국 축제'에 제주대표단이, 내년도 제주포럼에 다낭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또 공무원 상호 교류도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최근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광을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다낭 간 직항 노선이 취항해 양 지역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낭위원회의 역할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호끼민 다낭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다낭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와 다낭 관광객이 서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끼민 상임부위원장은 이어 "다낭 역시 하이테크 공업단지가 있고, 한국 업체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장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협약 체결에 앞서 다낭에서 찐 호암 뿐만 베트남 광응아이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만나 제주와 광응아이성의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광응아이성은 공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40%를 차지하는 도시로, 융복합경제특구와 4개의 산업 단지, 18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대한민국 중화학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공업 분야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 황선주 기자

오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새로운 동력이 출향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LNG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어디에서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한화는 앞으로도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을 찾아 끊임없이 혁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Hanwha



글로벌 선사 ONE, 부산항 방문…항만 인프라에 관심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4일 루이스

탕 ONE 아시아지역 총괄 사장 일행이 부

산항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BPA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부산항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K-Line, MOL, NYK 일본 3개 선사의 컨테이너 부문을 합병해 설립된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인 ONE는 2년 연속 부산항 처리 컨테이너 물동량 1위를 차지했다.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은 2022년 2천207만개 컨테이너를 처리했는데 그 중 ONE는 13.5%인 298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ONE는 부산항의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진해신항·배후단지 개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장수호 기자

'잼버리 대원 맞이' 울산도 준비 완료 3개 관광코스 마련



울산시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역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3가지 관광 코스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코스는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이 포함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코스다. 참가자들은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을 방문하게 된다.

두 번째 코스는 태화강국가정원 강변

에 조성된 4km가량 심리대숲과 해송·기암괴석·출렁다리를 즐길 수 있는 대왕암공원 코스다.

세 번째 코스는 울주군에 있는 용기마을과 Fe01 재생 복합문화공간, 자수정동굴나라 등을 방문하는 코스다.

아직 울산을 찾을 스카우트 대원 인원수와 방문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원들 방문 시 곧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협의 등 준비를 마쳤다"며 "200~300명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 김윤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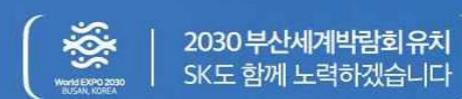
부산 7개 해수욕장서 한 달간 6건 성범죄 발생

부산서 해수욕장이 개장 후 한 달간 총 6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일 해수욕장 개장 후 한 달간 불법 활영 또는 강제 주행 혐의로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모두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4시 36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 영得罪를 손으로 만져 주행한 미얀마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강제 주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9분에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비슷한 기간 B씨를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만 불법 활영으로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핑보드에 앉아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 도원중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AI to [Everywhere]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내 손안의 AI 친구 A.(에이닷)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사피온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X Caliber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철리번플러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미디어 AI B tv까지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

SKT의 AI 반도체 사피온(Sapeon)은 정확한 도로 위 상황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 중 | UAM은 상용화 서비스 준비 중

'개막 코 앞'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본격 준비

9월 7일 개막 40여개국 참가…“보고 체험하는 ‘오감 행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시 준비에 들어갔다.

7일 광주디자인홍원에 따르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 비엔날레전시관과 광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디자인비엔날레 사무국은 최근 본 전시가 열릴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본격적으로 전시 준비를 시작했다.

4개의 주제로 열리는 본전시를 위해 자체 반입이 시작됐고 전시 공간 가벽 설치를 위한 현장 실측과 전기·통신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해외 작품도 항공과 선박편을 이용해 운송이 개시됐다. 사무국은 도착한 작품을 별도 보관하고 오는 21일부터 전시관 반입과 설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시장에서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배너

전시 도슨트(해설사) 8명에 대한 교육도 시작됐다. 전시 흥행을 위해 광주 도심 곳곳에 거리 배너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올해는 개막식에 시민 300명을 초청하는데 지난 6일 현재 130명이 신청했다.

전국에서 단체 입장권 사전예매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광주도시공사가 1천136매를 사전 예매한 것을 비롯해 학교 기관 단체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전 예매는 9월 6일까지 현장 판매가 1만6천원(성인 기준)에서 4천원을 할인한 1만2천원에 판매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광주시민 할인제를 도입해 광주 시민에 한해 3천원을 할인해준다.

주요 호텔 제휴 할인(2천원), 순천 정원 박람회 및 수목비엔날레 등 티켓 소지자 2천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디자인비엔날레 사무국 관계자는 “국내외 선진 디자인 등 불거리뿐만 아니라 배울 거리, 체험 거리, 놀거리가 풍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홍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40여 개국이 참여해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 노승진 기자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잘츠부르크 국립음대명) 대강당에서 열린 ‘카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에서 우승한 윤한결이 심사위원장인 만프레트 호네크와 사진 촬영을 했다.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최대한 많은 무대 서고 싶다”

세계 클래식계를 이끌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에서 우승한 윤한결(29)은 6일(현지시간) “최대한 많은 오케스트라를 만나며 연주를 같이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년 세계적 음악축제 중 하나

‘백제왕궁 달빛’에 빠진 잼버리 청소년…입소문 타고 1만명 방문



‘백제왕궁 달밤’에 빠진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참가 청소년들이 전북 익산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한여름 밤 왕궁리유적과 왕궁리 5층 석탑 사이에서 경이롭고 신비한 백제 왕궁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은 잼버리 청

소년들에게 ‘또 다른 한국의 멋’을 선사하고 있다. 익산시는 2~10일 총 1만여명의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과 관련 요원들이 익산을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하루 800명의 각국 청소년이 방문하는 세계문화유산 왕궁리유적의 ‘백제 왕궁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고대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야간관광으로 입소문을 타 잼버리 대원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 청소년은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 의상을 입고 여름밤 왕궁 5층 석탑 텁

돌며 소원을 기원하는 탑돌이 체험을 비롯해 사리장엄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백제 왕궁 타투, 서신 체험 등을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젊음의 거리’인 익산 원광대 대학가를 즐기고 원불교 종부에서 한국 종교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청소년들의 백제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또 다른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사지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림의 오감만족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인 ‘치킨 로드’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 운영요원(IST) 3천명이 익산을 방문하고 있다. 10일까지 익산시 망성면의 하림 익산공장에서 진행된다.

/ 최자혜 기자

지휘자는 협업하는 직업이라고 생각

“한국팬들이 그런 모습으로 봐 주길”

이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테움(잘츠부르크 국립음대명) 대강당에서 열린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에서 우승한 윤한결(29)은 6일(현지시간) “최대한 많은 오케스트라를 만나며 연주를 같이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한결은 “오늘 콩쿠르를 보려 오신 분들 중에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분들도 계시는데 저와 교류가 많은 분들이다. 지금 바로 떠올리자면 이 오케스트라와 작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윤한결은 이번 수상 소감을 묻자 “리허

설 때 준비했던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것 이 목표였고 연주가 제 예상보다도 잘 됐던 것 같다. 그게 가장 기쁘다”고 답했다.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윤한결은 서울예고 재학 중 독일로 건너가 뮌헨 음대를 졸업했다. 2019년 세계적 음악축제 중 하나

인 스위스의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에서 지휘 부문 1등상인 네메예르비상을 받으며 지휘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윤한결은 이때의 경연을 치르고 수상한 경험에 자신의 음악 인생에 가장 큰 자

양분이 됐다고 떠올렸다.

윤한결은 “제 음악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아내는 제가 나온 뮌헨 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지휘자다. 저와 음악과 지휘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내가 아직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준다”고 말했다.

/ 이윤희 기자

아직도 주유할 때 지갑 꺼내세요?

E+ energy plus 앱 다운받고
바로주유 하세요

앱 바코드만으로 주유, 결제, 할인, 적립까지 한 번에 끝!

1. 에너지플러스 앱 다운로드
2. 바로주유 결제
3. 결제/할인/적립 수단 미리 등록
4. 암만 카언 지갑 앱으로 주유 결제
5. 5만원 이상 주유하면 할인쿠폰까지

에너지플러스 앱은 GS 칼텍스가 제공하는 Mobility service를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서 고객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소식이 되자

아플 때, 걱정될 때 생각나는 보험을 넘어 언제라도 반가운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이 광고의 모든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신한알파로 자산이 알파만파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신한투자증권

[프로야구전망대] '밀리면 끝장'…3위 '4자 구도' 본격화

NC·kt·두산·KIA, 2경기 차 안에서 격전…선두 LG, 60승 선착 눈앞

프로야구 정규리그 레이스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준플레이오프(5전 3승제) 직행 티켓이 걸린 3위 경쟁이 달아올랐다.

6일 현재 4연승을 내달린 3위 NC 다이노스와 4위 kt wiz는 승차 없이 염쳤다.

5위 두산 베어스가 두 팀을 1경기 차로 추격 중이며, 6위 KIA 타이거즈 역시 두 산을 1경기 차로 쫓는다.

3~6위 4개 팀이 승차 2경기 안에서 엎 치락뒤치락 접전 중이다. 전반기 막판 7중에 달했던 5강 경쟁은 지난달 21일 후 반기 시작과 함께 4자 구도로 압축된 모양새다. 사실상 올 시즌을 포기한 키움 히어로즈가 삼성 라이온즈와 최하위를 다투는 지경으로 추락했고, 롯데 자이언츠가 7위로 내리막을 탔다.

8위 한화 이글스도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했다. KIA와 롯데의 승차는 3.5경기, KIA와 한화의 승차는 6경기로 3위 경쟁 팀 간의 격차보다 벌어졌다.

'지금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을 공유하는 3위 경쟁 4개 팀은 이번주 우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연승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 KIA에 4대 0으로 승리한 NC 선발 페디 등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4개 팀 중 2위 SSG 랜더스, kt와 잇달아 방문 경기를 치르는 NC 다이노스가 가장 혐난 길을 걷는다. 특히 2주 전 창원 안방에서 3경기를 내리 패한 kt와 치르는 주말 3연전에 총력을 펴부를 것으로 점쳐진다.

NC의 매서운 방망이가 강력한 선발 구를 펼치는 kt의 방패에 균열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선두권을 넘보다가 이

젠 5위를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두 산도 삼성, SSG와 버거운 일정을 앞뒀다. 절친한 이승엽 두산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두산은 7월 초 포항에서 열린 삼성과의 3연전을 쓱쓸이해 시즌 상대 전적에서 5승 3패로 앞선다.

삼성은 후반기에 8승 1무 6패를 거둬 탈꼴찌에 시동을 걸었다.

/ 최준용 기자

선발 투수 앨버트 수아레즈가 6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종아리 근육 손상 진단을 받고 4주간 이탈할 예정이라 선발 싸움에서 두산에 밀린다.

그러나 투타 궁합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잠실에서 벌이는 두산과의 주중 3연전에서 설욕할 수 있을지 시선을 끈다.

두산은 SSG에 2승 6패로 밀려 반전이 필요하다. KIA는 선두 LG, 롯데와 차례로 격돌한다. 올 시즌 전적에서 두 팀에 박빙 우세를 보이는 KIA는 이번주 반타작 이상의 성적을 기대한다. LG는 3승을 보태며 시즌 60승에 선착해 21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큼 다가선다.

전후기 리그로 나뉘어 열린 1985~1988년, 양대 리그로 치러진 1999~200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60승 선접 팀의 정규리그 1위 확률은 75.8%(33번 중 25번),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은 60.0%(33번 중 20번)에 달했다.

L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주 등판을 건너뛴 애덤 플랫코가 8일 마운드로 돌아오는 게 반갑다.

/ 최준용 기자



7월 전북 현대에서 뛸 때의 조규성

조규성, 덴마크 프로축구 리그 3경기 연속 득점포

덴마크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개막 후 리그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조규성의 소속팀 미트윌란은 7일(한국시간) 덴마크 링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2024시즌 덴마크 프로축구 수페르리가 3라운드 링비와 원정 경기에서 1-4로 졌다.

후반 36분 교체 선수로 기용된 조규성은 팀이 0-4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포를 기록했다.

이로써 조규성은 7월 22일 리그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7월 30일 2라운드 경기에 이어 이날 경기까지 리그 3경기에서 모두 골을 터뜨렸다.

후반 추가 시간에 헨리크 달스가르드

가 전방으로 길게 옮겨준 공을 조규성이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이겨내며 골키퍼와 일대일로 마주 섰고, 원발로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리그 개막 후 2연승을 달리던 미트윌란은 이날 전반 6분에 한 명이 퇴장하는 수적 열세 속에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으나 조규성의 리그 세 경기 연속 골이 작은 위안이 됐다.

리그에서 3골을 넣은 조규성은 득점 부문 공동 3위에 올랐다.

미트윌란은 11일 오모니아(키프로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3차 예선 1차전 경기를 치른다.

/ 임현중 기자

안병훈, PGA 투어 원덤 챔피언십 준우승…우승은 글로버



헨리와 악수하는 안병훈(오른쪽)

안병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덤 챔피언십(총상금 76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안병훈은 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천13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러셀 헨리(미국)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안병훈은 2016년 5월 취리히 클래식, 2018년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2018년 7월 RBC 캐나다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PGA 투어 준우승을 달성했다.

안병훈은 PGA 투어 178개 대회에 나와 우승은 없고, 준우승 네 번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

안병훈은 "우승을 못 해서 아쉽긴 하지 만 공동 2위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며 "올해는 꼭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루커스 글로버(미국)가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로 우승했다.

2009년 US오픈 챔피언인 글로버는 2021년 7월 존디어 클래식 이후 약 2년 만에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36만8천 달러(약 17억8천만원). 이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112위였던 글로버는 이번 우승으로 페덱스컵 순위를 49위로 끌어올려 상위 70명 이나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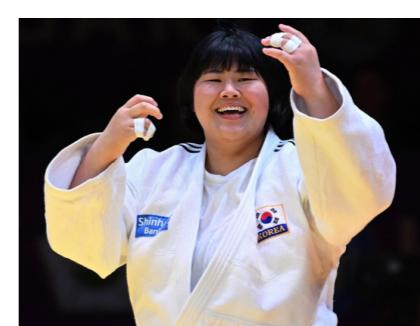
이번 대회는 2022-2023시즌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로 열렸다.

이 대회까지 페덱스컵 상위 70명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2022-2023시즌 페덱스컵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는 10일 개막하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BMW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으로 이 달 말까지 이어진다.

/ 한호영 기자

유도 김하윤, 헝가리 마스터스 동메달



덜란드의 스테벤손 카런을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꺾었다.

김하윤은 3라운드에서 중국 쉬스엔에게 안다리걸기 되치기 절반을 내줘 패자전으로 밀렸으나 레아 풍텐(프랑스)을 안다리걸기 절반으로 누르고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다.

메달 획득은 쉽지 않았다. 그는 경기 시작 30초 만에 카런과 지도(반칙) 1개 씩을 주고받았고, 14초 뒤엔 절반을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다. 그러나 김하윤은 경기 시작 54초에 안다리걸기 기술로 반격해 상대를 쓰러뜨렸다. 김하윤은 올해에만 네 번째 국제무대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 신희정 기자

에너지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주

BUSAN is READY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슈가, BTS 솔로 최초로 KSPO돔 입성…월드투어 피날레

서울 앙코르 콘서트…사흘간 3만8천 관객 동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는 그룹에서 처음으로 솔로 가수로 케이스포돔(KSPO DOME·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입성했다. 슈가는 지난 4~6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어거스트 디 투어 디 데이 더 파이널'(Agust D TOUR 'D-DAY' THE FINAL)을 열고 2개월 만에 서울 관객과 다시 만났다.

6일 마지막 날 공연 무대에 오른 슈가는 솔로 아티스트 '어거스트 디'(슈가의 솔로 활동 명)로 보내온 7년간의 음악 여정을 무대 위에서 펼쳐냈다.

이번 콘서트는 6월 열렸던 '디 데이' 서울 콘서트를 재현한 앙코르 공연으로, 올해 4월부터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총 10개 도시에서 열린 슈가의 월드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기도 하다.

4월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음반 'D-데이'(D-DAY) 타이틀곡 '해금'으로 문을 연 슈가는 '대취타', '어거스트 디'(August



BTS 슈가 앙코르 콘서트

D,'기브 잇 투 미'(give it to me) 등 네 곡

로 등장했다.

슈가는 '오늘 콘서트가 '디 데이' 투어의 마지막인 만큼 아쉬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즐겼으면 좋겠다'며 객석의 호

응을 이끌었다.

이날 공연에는 BTS 멤버 RM이 게스트

로 연이어 선보였다.

슈가는 '이상하지 않은가'를 함께 부른 RM은 "슈가 형의 월드 투어 피날레에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최근 짧아진 머리 때문에 '입대설'

이 돈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더워서 머

리를 잘랐다. 입대와는 관계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입대) 공지는 잘 나갈 예정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며 웃은 그는 "오늘이 입대 전 마지막 라이브 무대일 것 같다"고 말했다.

RM의 미발매 솔로곡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른 슈가는 '스누즈'(Snooze)를 부를 때는 직접 전자 기타 연주를 선보였다.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무대로 공개하는 솔로곡 '어땠을까'에서는 감성적인 래핑으로 자작적인 이야기를 녹여냈다.

슈가는 앙코르 곡으로 '디 데이', '인트로 : 네버 마인드'(Intro : Never Mind),'마지막'을 선보이고 모든 무대를 마쳤다.

이날 콘서트로 피날레를 장식한 슈가의 첫 월드 투어 콘서트는 전 세계에서 29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서울 앙코르 콘서트에는 사흘간 3만8천여 명의 관객이 들었다.

/ 황준호 기자

뉴진스 “빌보드 200’ 1위 비현실적 전 세계 버니즈에 감사”



고 말했다.

멤버 하나는 “데뷔 앨범부터 이번 앨범까지 많은 분의 시간과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음악 축제 롤리팔루자 무대에 오른 소감도 전했다.

하나는 “정말 꿈같았다. 우리 노래를 관객들이 다 같이 ‘페장’할 때는 소름이 돋았다”며 “무대 하는 내내 에너지를 받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페스티벌이었다”고 떠올렸다.

다니엘은 “롤리팔루자와 같은 큰 무대에 서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룹 뉴진스가 지난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신기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진스의 민지는 7일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밝힌 소감에서 “처음 ('빌보드 200' 1위)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 전 세계 버니즈(팬클럽명)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 김희정 기자

SM 떠난 규현, 안테나와 전속계약 체결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가수 이효리, 방송인 유재석 등이

소속된 기획사 안테나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7일 안테나는 “슈퍼주니어의 메인 보컬 이자 발라드 가수 규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한 규현은

/ 이은주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킹더랜드’ 자체 최고 시청률 13.8%로 종영

배우 이준호와 임윤아의 로맨스 케미(호흡)가 돋보인 드라마 '킹더랜드'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JTBC '킹더랜드' 마지막 회 시청률은 13.8%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 천사랑(임윤아 분)은 구원(이준호)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털어놨다.

천사랑은 킹호텔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호텔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구원은 그런 천사랑의 꿈을 응원해준다.

비쁜 와중에서도 틈날 때마다 만나며 변함없는 애정을 뽐내던 두 커플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며 해피엔딩을 맞았다.

'킹더랜드'는 재벌 2세 구원과 '캔디' 천사랑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

냈다. 초반에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아픈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깨질해진 남자, 그런 남자를 자꾸만 웃게 만드는 긍정적인 여자 주인공은 익숙한 클리셰였고, 둘이 계속해서 얹히게 되는 주변 상황들 역시 뻔하고 예측할 수 있게 흘러갔다. 뻔한 전개인데도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든 건 무엇보다 두 배우의 연기 궁합이다. 2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인 배우 이준호와 임윤아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각자의 캐릭터를 매력 있게 소화해냈고, 열애설이 제기될 만큼 빛나는 케미를 보여줬다.

시청률 5.1%로 출발한 '킹더랜드'는 6회 만에 12%를 기록했고, 최종회 시청률은 첫 회 시청률의 두 배를 넘어섰다.

/ 최준영 기자

한국 대작 3파전 첫 주말 승자는 '밀수'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밀수'는 지난 4~6일 93만7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42.7%)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353만여 명이다.

개봉 첫 주말인 지난달 28~30일 117만여 명(매출액 점유율 53.9%)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달 2일 '비공식작전'과 '더 문'이 한꺼번에 개봉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흥행 속도가 유지된다면 '밀수'는 이번 주 내로 순이분기점인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작전'은 지난 주말 사흘간 44만여 명(20.1%)을 동원, '밀수'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에 자리했다.

누적 관객 수는 70만여 명으로 이번 주 100만 관객 돌파가 점쳐진다.

'더 문'은 18만4천여 명(9.0%)을 모으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 강희수 기자

SUMMER FANTASY

**현대백화점이 선보입니다,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

올 여름,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를 선보입니다.
백설공주부터 엘사까지, 한 세기 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랑 받아온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판타지 스튜디오
10m 초대형 "미키 마우스"와
9개의 캐릭터의 세계관으로
구성된 체험형 콘텐츠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로
디자인 된 굿즈

이벤트 & 기프트
디즈니 OST 콘서트,
캐릭터 코스튬 팬이벤트
캡슐 이벤트와 포토부스

현대백화점 전점
8. 1(화) - 8. 24(목)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나물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비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이씨미술관
더현대닷컴
온라인 디즈니 스토어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활짝 웃는 기술

LG의 클린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해양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로
내일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